

기적 ‘걸음마 단계’ 한국 여자야구 쿠바 꺾고 슈퍼라운드 진출

세계여자야구월드컵

세계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 여자야구가 2연승으로 목표로 내세운 슈퍼라운드

에 진출하는 기적을 일궜다. 이광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LG 후원 2016 세계여자야구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쿠바를 상대로 4-3 역전승을 거두며 상위 6개국에 주어지는 슈퍼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했다.

쿠바 세계랭킹은 8위로 한국(11위)보다 3계단 높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도 한국이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표팀은 보란 듯이 강력한 쿠바를 제압했다. 전날 파키스탄전에 이어 2연승을 거둔

한국은 5일 베네수엘라전 결과에 상관없이 전체 12개 출전국 중 상위 6개국에 나가는 슈퍼라운드 진출을 미리 확정했다.

한국 여자야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번 대회 출사표를 던진 대표팀이 내건 1차 목표가 슈퍼라운드 진출이었다. 태극 여전사들은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기선을 제압한 쪽은 쿠바다. 쿠바는 2회초 한국 선발투수 이미란을 상대로 2회초 한국 선발투수 이미란을 상대로 2

점을 뽑아 앞서나갔다. 한국은 2회말 추격에 시동을 걸었다. 1사 후 광대이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고, 양이슬이 안타를 치면서 1사 1·3루가 됐다. 석은정은 좌전 적시타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쿠바는 4회초 한국의 두 번째 투수 김

라경을 상대로 유격수 방면 내야 적시타로 1점을 달아났다.

6회초에 잇따른 멋진 수비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한국은 6회말에 역전에 성공했다. 정운영과 배유가의 잇따른 중전 안타로 한국은 무사 2&3루의 기회를 잡았다.

정혜인은 우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고, 광대이는 희생번트로 승부를 3-3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양이슬은 1사 3루에서 중전 적시타로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했다.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은 남자 경기와 달리 7회까지만 진행된다. 7회초를 성공적으로 막으면서 이날 경기는 한국의 승리로 종료됐다. /연합뉴스



5일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LG 후원 2016 세계여자야구월드컵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광환 감독(맨 오른쪽)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 경기에 앞서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2연승을 거둔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12개 출전국 중 상위 6개국에 나가는 슈퍼라운드 진출했다. /연합뉴스

호랑이 4강 굳히기 헥터가 뜬다



1.5게임차 SK전 선발 출격 켈리와 시즌 네번째 맞대결 완투승 등 2승 ‘좋은 기억’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악연이라면 악연이다. 올 시즌 벌써 4번째 만남이다. 이번에는 오랜 만남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양팀의 운명을 걸고 헥터(KIA)와 켈리(SK)가 다시 또 만난다.

‘4강 굳히기’에 들어간 KIA 타이거즈가 6일 문학구장에서 SK 와이번스를 상대한다.

4일 경기 전까지 5위를 지키고 있던 LG가 이날 kt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3경기 차 6위로 내려앉았지만, SK는 NC를 상대로 2연승에 성공하면서 1.5게임차로 KIA를 쫓게 됐다.

문학에서의 2연전 결과에 따라 KIA의 독주가 시작될 수도 있고, 4강 판도가 다시 혼전에 빠질 수도 있다.

운명이 걸린 승부에서 헥터와 켈리가 두 팀을 대표해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벌써 4연속 맞대결이다. 두 선수는 올 시즌 각각 SK와 KIA를 상대로 4차례 선발로 출격했다. 이 중 최근 3경기에는 두 사람의 맞대결로 전개됐다. 세 경기 모두 KIA의 승리였다. 헥터는 이 중 두 경기에서 승리투

■ 프로야구 순위		(5일 현재)				
순	팀명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79	1	43	0.648	0.0
2	NC	67	2	46	0.593	7.5
3	넥센	69	1	52	0.570	9.5
4	KIA	60	1	61	0.496	18.5
5	SK	61	0	65	0.484	20.0
6	LG	57	1	64	0.471	21.5
7	한화	54	3	64	0.458	23.0
8	롯데	54	0	66	0.450	24.0
9	삼성	52	1	66	0.441	25.0
10	kt	46	2	72	0.390	31.0

수가 됐다. 6-5 경기의 완투승도 있다.

지난 8월31일에도 두 투수는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서 대결을 벌였다. 켈리의 설욕전은 화끈한 타선의 지원 속에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1회부터 두 선수는 실점을 기록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다. 2-1로 KIA가 앞선 3회말 켈리가 김주찬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4회초 헥터가 급격하게 흔들렸다. 박정권의 안타를 시작으로 박재상의 3루타까지 계속되면서 헥터는 대거 4실점을 했고 경기는 3-5로 뒤집혔다.

켈리가 마침내 헥터에게 패배를 안겨주

는 것 같았지만 야수진의 실수 남발 속에 이날 켈리의 기록은 4.1이닝 11피안타(피홈런) 4사사구 3탈삼진 6실점(5자책)에서 끝났다. 헥터는 초반 불안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7회까지 경기를 책임지면서 7-5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두 사람은 6일 장소를 바꿔 운명을 건 승부를 펼친다.

4강 질주를 위해 ‘동갑내기 절친’ 김주찬과 이범호가 공격 전면에 선다. 지난 4일 롯데전에서 득점과 타점을 책임졌던 두 사람은 SK원정에 이어 NC와의 홈경기·kt 원정으로 이어지는 이번 주, 팀의 승리는 물론 자신의 기록 달성도 준비하고 있다.

김주찬은 앞으로 11타수를 더하면 5000타수 기록(통산 33번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범호는 안타 하나만 보태면 통산 26번째 1500안타 주인공이 된다. 또 앞으로 9개의 공이 담장을 넘어가면 팀의 3700홈런 기록도 채워진다. 삼성에 이어 두 번째다.

좌완 심동섭과 우완 한승혁 두 신진 선수들의 상승세 속에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프로야구 최고령 투수 최영필은 3년 연속 10홀드(통산 18번째)에 도전한다. 남은 홀드는 2개다.

팬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타이거즈 선수로 돌아온 안치홍의 성적도 이번 주 KIA의 관심사다. /김여울기자 wool@

“오승환 절실하게 원한다”

김인식 2017 WBC 사령탑 선임

“오승환이 욕심난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의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인식(69) 감독이 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감독직을 수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수 몇 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들은 WBC 국가대표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고 볼 수 있다. 김 감독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투수 오승환(세인트루이스)의 합류를 절실하게 원했다.

김 감독은 “감독이 되고 나니 오승환이 더욱더 절실해졌다. 감독이 되고 나니 더욱더 욕심이 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승환은 마무리투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는 이날 시즌 15세이브를 거뒀다. 하지만 오승환은 지난해 말 해외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킨 탓에 국가대표로 뛸 경우 비난 여론을 마주할 수 있다.

김 감독은 “오승환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사실 본인이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나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든다. 기술위원회와 상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류제국(LG)을 거론했다. 선수 구성에서 가장 고민이라고 밝힌 ‘오른손 선발투수’에 대한 생각을 말하면서다. /연합뉴스



김 감독은 “오른손 선발은 지금 딱히 생각이 잘 안 난다”면서 “류제국이 올해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

런 선수들이 타자를 상대해서 요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경험 없이 공만 빠른 선수보다는 훨씬 낫다”고 호평했다.

그는 또 기존에 국가대표에 승선하지 못했던 젊은 야수 중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바로 넥센의 내야수 김하성과 외야수 고종욱, 삼성의 외야수 박해민이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타자들의 합류 기대감도 크다. 특히 이대호(시애틀)는 김 감독에게 먼저 연락할 정도로 적극적인이다.

김 감독은 “이대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다. ‘부상이 없는 한 (대표팀 합류)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미소지었다.

부상 치료 중인 박병호(미네소타)도 김 감독에게 먼저 ‘감독 선임을 축하드립니다’는 문자를 보내며 WBC에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이미향, 아깝다 10번홀 더블보기

LPGA 메뉴라이프 1타차 2위

카롤리네 마손(독일)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매뉴라이프 클래식(총상금 16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마손은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의 휘슬 베이 골프클럽(파72·661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몰아치고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더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마손은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24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3라운드 단독 1위였던 이미향(KB금융그룹·사진)은 호주교포 이민지(하나금융그룹), 카린 이세르(프랑스)와 함께 15언더파 273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상승세의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등 세 명이 14언더파 274타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4라운드 막판까지 마손과 이민지, 주타누간, 김효주(롯데) 등 네 명이 15언더파에서 공동 선두를 달리는 혼전이었다. 김효주가 먼저 14, 17번 등 파 3홀에서



한 타석 잃으면서 선두권에서 멀어졌다. 마손은 16번 홀(파5)에서 약 10m 긴 거리의 이글 퍼트를 남겼고 16언더파 고

지에 먼저 올랐다.

15언더파에서 추격하던 이민지와 주타누간은 끝내 1타를 더 줄이지 못했다. 이민지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약 5m 버디 퍼트가 빗나갔고, 주타누간은 18번 홀에서 공을 잃어버리고 티샷을 다시 해야 했다. 주타누간은 칠팓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는 팬 서비스를 했지만 1타를 잃으면서 순위가 공동 5위로 밀렸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이미향이 15, 16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먼저 경기를 끝낸 마손을 1타 차로 압박했지만 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전인지(하이트진로)와 김효주는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대학 핸드볼리그

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6 대학 핸드볼리그 2라운드 조선대와 충남대 경기에서 조선대 김민재가 슛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